

(주)다쓰테크 | 태양광인버터 절대강자

다쓰테크(대표 김만희)는 2006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력전자 전문기업으로 국내 태양광 인버터시장 선두주자다.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액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5건, 미국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500kW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해 한국전기연구원 성능검사를 합격하고 현재 양산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호주에 100대의 가정용인 3kW 태양광 인버터를 수출한 바 있다.

다쓰테크는 현재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태양광인버터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다쓰테크의 솔라프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효율로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인버터분야의 강자다.

지난 2006년 불과 12억원의 매출에 그쳤던 다쓰테크는 1년 뒤 43억원, 2008년에는 145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54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단상 인버터분야에서는 이미 3년 연속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3상 인버터시장에서도 가벼운 무게와 97%가 넘는 고효율을 무기로 시장점유율에서 2위까지 뛰어올랐다.

다쓰테크의 삼상인버터는 국내 최초 무변압기 방식이 적용된 제품으로 발전효율이 변압기 방식보다 2~3% 높고 발전시간도 2시간이 길다. 이에 타사 제품과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효율 차이가 난다.

해외시장 공략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부터 유럽시장에 수출



DSP-123K2 단상인버터

을 하고 있으며 단상 인버터 등 2개 제품에 대한 TUV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독일,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에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APOLLO 아폴로테크 | 태양광발전소 시공 선두주자

아폴로테크(대표 김중제)는 1991년 설립된 반도체, LCD, 태양전지관련 원자재 수출입 전문기업으로 태양광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태양광발전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관련 태양전지모듈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체 태양광발전소도 보유하고 있으며 고창발전소 400kW, 정읍발전소 700kW, 주산발전소 300kW, 창동1발전소 400kW, 창량발전소 400kW, 대한수력발전 100kW 등의 발전소를 준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폴로테크는 서울 소재의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전라북도 감곡에는 (주)정읍솔라파라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발전소 유지보수 및 A/S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 24시간 내 A/S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히 시공경험과 기술부문에 있어 LH공사 6개현장 500kW, 대덕구청 스페이스 구조물 50kW, 자체발전소 6곳 총 5MW를 시공,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홈100만호사업, 일반보급사업, RPS사업 등 충분한 설계 시공 및 A/S 경험을 갖고 있다. MAS(다수공자물품계약)와 그린홈 선정업체는 아폴로테크를 포함해 전국 21개사 뿐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젊은 지역인재를 발굴, 지역발전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 기술, 고객을 중시해



전북정읍 1,000kW급 태양광발전소.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아폴로테크는 설계·시공전문, 구조물 공장보유, 모니터링, 접속반 제조사로 삼상, 하이닉스와 기술제휴를 맺고 납품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웨이퍼와 ICD 유리기관을 수평하게 유지해 불량률 감소에 주는데 사용하는 정전척과 접착척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신용평가 등급 또한 'BB+'로 16개 등급 중 5등급이내 업체로 외부감사 법인 평가 대상일 정도로 건실한 기업이다.

녹색기술
전문기업

EAGON | BIPV 선도기업 자리매김

이건창호(대표 안기명)는 1998년 설립해 2006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 당해 대립 기술연구소에 1kW급 BIPV 샘플 시공 완료로 시작으로 BIPV분야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건창호는 약 20년간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검사 장비, 효율 측정 장비, 시공 설비 등 다양한 태양광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문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제로 하우스' 개념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 자재 개발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한 난방에너지절약에서부터 냉방시스템에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태양에너지를 통한 건물에너지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2007년 섬진강 토산 어류 생태박물관에 165kW의 BIPV시스템을 시공했으며 2008년 차세대 태양전지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2009년에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태양광 전문기업으로 선정됐다. 2009년 포스코 송도E6 특급호텔에 56kW급의 BIPV시스템을 시공했으며 현재 국내 BIPV부분의 80% 이상을 수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관련 태양광시스템의 국내 최고 기술 및 실적을 보유 BIPV를 이용한 2007년 에스에너지 신축공장을 시작으로 일반보급, 주택보급, 지방보급,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에서 다수의 수주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건창호는 완벽한 A/S센터를 운영해 사후관리에도 완벽한



BIPV시스템 시공 조감도.

을 추구한다.

통합콜센터, 솔라에너지사업부, 지역사업소(영남, 호남), 전국 55개 대리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 확인 및 접수하고 현장 방문 여부를 결정, 1차로 유선 기술지원을 하고 2차로 현장을 방문해 보수 및 기술지원을 한다. 이외에 분기별 점검과 원격감시체제로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이앤에이지(주) | 태양광 특화 시공능력 보유

이앤에이지(대표 박대진)는 1973년 설립된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이다. 1993년 아파트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시작으로 2000년 고속도로 및 산불감시 CCTV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공 설치했다. 2001년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연구사업에 참여했으며 2008년 이앤에이지로 사명을 변경, 당해 국내 최대 규모의 BIPV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A등급기업으로 지정, 올해에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역시 2008년 94억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97억원, 2010년 128억원, 올해 2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앤에이지는 2002~2003년 시범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전국 주택보급 확산을 시작으로 당해 주택 보급세대의 42%를 점유, 2005년에는 기업체, 공공기관, 상업용발전소 등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품질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고주파 공진형 전력변환장치, 태양에너지 전도를 최적화한 모듈, 태양에너지 복사를 최적화한 모듈 등 자체 기술력으로 이뤄낸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앤에이지는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 의무화사업, 주택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등신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해 높은 성과를 냈다.

현재 추진 산업단지 내 소재한 공장의 확대 계획을 갖고 지난 15일 착공, 오는 6월 완공예정이다.

또한 R&D기반 확충계획에 따라 본사 및 춘천공장 내 별도



1,800kW급 창녕발전소.

독립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며 PV시스템 성능 최적화분야, IT융합 아이선모니터링시스템분야, 마이크로 인버터, 접속반분야 등은 본사 연구소에서 모듈 개발 및 제조기술분야, 태양광 모듈일체형 마이크로 인버터(PCS) 개발, LED 조명시스템 개발 등은 춘천공장 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초저온산업!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크로텍 임직원 일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고객사의 품질경쟁력 및 능률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